

지역기업 미국 관세 대응, 시스템 정비·공급망 다양화 필요

광주연구원 위기대응 심포지엄…자동차 등 지역산업 타격 우려
베트남 등에 집중된 생산 공장 글로벌 물류 고려 확대 전략 세워야
미·중 ‘관세 패권 줄다리기’로 석유화학·조선 반사이익 가능성도

광주기업들이 미국 트럼프발 관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고관세 위험 등에 노출된 동남아시아 공장 대신 새로운 공급망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경제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경제의 상황 파악 및 향후 전망,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봉진 광주연구원 센터장이 ‘광주 경제 동향 및 경기 진단’을 주제로 현재 광주지역의 경제 상황을 심도있게 설명해 지역 기업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가 ‘더 따뜻한 민생 경제를 위한 물음’을 주제로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육성 등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수출입 산업이 주력인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동남아 공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수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트럼프 관세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미 25%의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이들 산업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분야 기업의 해외 수출 실적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 과장은 이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초기 과장부터 오는 7월 8일 한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변경 부과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지역경제 위기대응 심포지엄’에서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연구원 제공>

되는 상황 등을 소개하고, 중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그 외 국가의 관세 대응 현황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허 과장은 또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석유화학·조

선 등의 업종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패권 줄다리기’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올 1~2월 중 생산(-1.6%)과 수

출(-5.8%) 등이 동반 감소하는 등 업황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미국이 추가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만큼 미국의 대중국 145% 고율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허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전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놔다.
허 과장은 또 “같은 기간 조선업계 역시 선박 생산이 29.2%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중국 조선업계 견제 등의 정책들이 국내 조선업계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수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정책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공급하거나, 석유화학 산업에는 전기요금 부담경감 지원 등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기업들도 베트남과 인도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제조기반 국가들이 개별 관세 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글로벌 생산·물류 흐름을 고려한 공급망 확대 전략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30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광주은행은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지역 대학생 3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매년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을 선발해 업무 경험 제공 및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30명의 지역 대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오는 10월까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 홍보, 새로운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대학생 홍보대사에게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을 제공하며, 홍보대사 활동이 종료된 뒤 평가를 통해 활동이 우수했던 팀과 개인을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창의성과 협업 역량 기반으로 광주

은행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 석유화학 올해도 힘들다

S&P “공급 과잉 수요 부진 지속”

국제 신용 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이하 S&P)가 올해도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8일 ‘더 깊은 하락 사이클에 직면한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이란 보고서를 내고 “2022년 말 시작한 하락 사이클이 아직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및 중동 지역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공급 과잉에 일조할 것”이라며 “글로벌 고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을 심화시켜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또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여전히 미드 사이클(Mid Cycle-중간 사이클)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며 “이번 하락 국면은 향후 2년 내 벗어나기에는 너무 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 데이’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몬테스 알파’ 등 몬테스의 다양한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일까지 지하 1층 와인매장에서 칠레 와인너리 ‘몬테스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몬테스 데이는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인 몬테스 알파 등 몬테스의 와인들을 1년에 단 한번만 특가로 선보이는 행사다. 대표 상품으로는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몬테스 알파 샤도네이’, ‘몬테스 알파M’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생산성 개선방안 찾아야”

KDI 성장률 전망 분석 보고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

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인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 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 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 4000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 6000 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경기부양 위해 금리 인하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 3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완화 속도를 늦췄다. 이 같은 미 연준의 흐름과는 별개로 한국은행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29일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6~7일(현지 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잇달아 낮아진 뒤 올해 1월 29일 인하 행렬이 멈췄고, 3월 19일과 이날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베슨트 재무장관 등이 줄기차게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도 연준이 올해 들어 5개월 가까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고용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준도 이날 성명에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양대 목표(최대 고용·물가 안정)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며 “관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정책 금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인내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로 유지됐다. 지난달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통화위)는 1500원대를 넘보는 원/달러 환율과 다시 들쭉이는 가계대출 등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묶었다.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NATO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국정원 등 47개 기관 170명 구성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Locked Shields(락드실즈) 2025’에 참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캐나다 연합훈련팀으로 훈련에 참여했으며, 한국 팀은 한전,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의 17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격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방어는 40개 국가로 구성된 17개 팀이 각각 역할을 맡아 경쟁하는 방식이다.
특히 방어팀은 기술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기대응 관련 상황보고 체계, 언론대응, 법률전략 등 다방면의 역량을 종합 평가한다.
한전은 이번 훈련에 자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중심으로 정보보안 인력을 선정해, 방어

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한전은 에너지 분야 등 가상 시스템에 대한 전산망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전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대응 노하우를 습득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 및 보안 분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전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9.48	(+5.68)
↑ 코스닥	729.59	(+6.78)
↑ 금리(국고채 39년)	2.281	(+0.028)
↑ 환율(USD) <오후 4시 49분 기준>	1398.10	(+0.10)